

鑄面半圓形으로 되었다. 第一節과 第二節로 區分되었는데 背面各節에는 精密한 紋樣이 施紋되었으니 其一은 沈刻斜線紋과 格子紋이 外形을 따라 施紋되었고 「其二」·「其三」은 沈刻斜線紋과 沈刻點線紋이 亦是 外形을 따라 交互로 二重施紋되었다. 그리고 各節마다 잘록된 가운데에 各一個씩의 紐를 形成하고 銅線을 꼬아 만든 것과 같은 고리(環)를 단들어 紐에 달았다. 裏面은 대나무(竹)를 竹條로 놓은 것처럼 內入된 半圓形 凹部를 이루고 各節마다 紐를 一個씩 만들었다. 이들 金具의 用途는 未詳한데 그 背面施紋法이 傳洛東江流域 出土 銅製附八手形飾金具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一三八號의 施紋法과 같아 注目되며 그리고 一層 더 華麗하고 精密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構造는 背面 各節의 「고리」로 하여금 上으로 피 달고 또 下面 各節의 「紐」로 하여금 下로 懸垂物을 피달게 하였다.

D, 裝飾品은 石製裝飾品과 小玉이 出土되었다.

① 裝飾品(圖解(5))은 綠青色에 白色斑點이 있는 아름다운 石英質이 많은 돌로 製作된 것이다. 그 形態는 「圖解(5)」와 같이 圓環을 切半으로 나눈 것 같은 C字形으로 한 쪽에는 小孔을 뚫어 끈으로 피게 하였는데 이는 裝身具로 使用하던 裝飾品이라 하겠다. 이는 扶餘蓮花里出土 天河石製 裝飾品과 그 石質·形態가 똑같은 것으로 靑銅時代의 裝身具에 對한 앞날의 研究가 期待되는 바다.

② 小玉은 아름다운 綠青色 石製 小玉이 總五十個가 收拾되었다. 亦是 前記 裝飾品과 같은 石質로 같은 用途에 使用하던 것으로 推定된다.

#### 四

却說 大田市를 中心으로 附近에는 支石墓가 分布되고 磨製石器(玃)가 出土되며 그리고 銅劍把頭飾(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二〇八號)等이 出土되어 大田地方의 先史時代가 注目되어 오던 차에 今般 珍貴한 遺物이 出土되어 大田地方 나아가서는 韓國의 靑銅器文化의 性格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今般 遺物 出土에서 ① 靑銅器와 石器가 伴出한 것은 前例에 이어서 靑銅器時代에 石器를 併用하였다는 事實을 더욱 強調하는 것이라 하겠다. ② 靑銅器와 黑陶가 伴出한 것도 새로운 示唆를

주는 新例이며 漢江流域의 黑陶의 出土例는 있었지만 錦江流域에서의 黑陶의 出土例는 처음으로 注目되는 바다. ③ 靑銅器遺跡에서의 前述한 石製裝飾品의 出土는 扶餘 蓮花里의 出土例에 뒤이어서 두번째로 當時의 「악세사리」의 樣式成立考察에 새로운 注目を 이끄는 바다. ④ 靑銅器 自體에 있어서도 ① 精緻文鏡으로 넘어가는 前提品인 粗文鏡系의 多紐細文鏡의 出土例는 兩湖地方의 特色을 形成한 것으로 貴重한 資料라 하겠다. ⑤ 또 錦江流域에서 처음으로 銅鐸이 出土된 것은 銅鐸의 分布上 注目되는 바다. ⑥ 그리고 銅製劍把形金具의 施紋法의 精密함과 아울러 아름다운 놀라운 發展相이라 하겠고 또한 背面의 「紐」에 다시 「고리」를 附加한 二次元的인 工程을 겪어야 할 手法는 놀라운 鑄造法이라 하겠다. ⑦ 特別히 用途未詳의 銅製楯形金具·銅製圓形金具·銅製劍把形金具 等은 새로운 示唆를 주는 것으로 앞날에 正確한 判定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註) 大田市誌 古蹟編

#### 〈追記〉

文化財委員會에서는 八月二十九日 文化財委員 秦弘燮 教授와 文化財專門委員 鄭永鎬 教授를 現地調査次 派遣하였으며 이와는 別途로 金元龍 教授와 國立博物館의 尹炳武 學藝官·金正基氏 韓炳三氏에 의하여 八月三十日에 現場이 發掘되었는데 豫測했던 바와 같이 深二·七m의 積石下에서 長二四〇cm 幅五〇cm의 南北主軸으로 된 石槨이 나타났다. 그리고 前述한 樣式과 같은 石槨一個·石製裝飾品一個·小玉若干과 銅製品破片이 土砂속에서 發見되었다. 地下에서 露出된 遺構를 앞에 놓고 孫龍甲氏의 說明에 依하면 椁 墓室·北端 西壁에서부터 시작하여 土器, 劍把形銅器, 銅鐸, 細文鏡, 圓蓋形銅器, 楯形銅器, 조금 사이를 두고 西壁 가까이 銅劍, 이와 相對하는 東壁 가까이 石槨, 다시 사이를 두고 中央에 裝身具가 있었다고 한다.

### 槐山 外沙里 寺址調查

—— 葆華閣 浮屠 原位置 ——

鄭 永 鎬

槐山郡 七星面 外沙里에 廢寺址가 있음은 오래 前부터 알고 있었던 바



이며 더구나 現在 蓀華閣에 移安된 石造浮屠<sup>①</sup>의 原位置가 上記 寺址임에서 是處에 調査를 行한 槐山地區에서 行한 槐山地區地 表調査의 一環으로

이 一帶를 踏査한 바 있기에 그 內容을 簡單히 紹介하러 한다.

七星面所在地에서 約五km 水力發電所行路로 가면 發電所 附近에 外沙里 江을 건너기 前 東岸에 三星部落이 있고 그 南쪽 於口 耕作地에 幢竿支柱가 우뚝이 서 있음은 보아 곧 南向의 寺刹이었음을 알 수 있다. 前記 浮屠의 原位置는 幢竿支柱에서 東쪽 五百m 되는 道路邊으로서 現在 七星面長인 金漢根氏<sup>②</sup>가 어렸을 때에도 늘 보고 다녔다 하는데 지금은 民墓二基가 자리잡고 있을 뿐 다른 痕跡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法堂址에는 十餘戶의 民家가 들어서서 原形은 完全히 錯亂되었으며 곳곳에서 殘餘石片 等 若干의 遺物이 發見될 뿐이다.

- (1) 幢竿支柱: 原位置로서 兩石柱가 整然하며 上端에는 竿柱를 支持하는 「홍」이 과여 있다. 下部中央에는 幢竿을 받기 爲한 臺石이 있는 데 二段의 圓座가 있는 羅·麗代의 樣式手法으로 보였다. 實測值는 (cm)、總高 三三四 支柱間幅 八一·五 支柱幅 三八·五 總幅 一六〇 竿柱臺石 徑六〇·五 支柱厚 六〇
- (2) 龜趺龜甲紋石片: 六角形의 龜甲紋으로서 三條의 陽刻인데 中央에는 四葉의 花瓣이 彫刻되어 있다. 現在 石片에는 三座의 龜甲紋 (一邊長 一一·五cm)이 있는데 龜趺를 몇 쪽으로 破壞하여 家屋의 石 材로 使用한 것 같다. 아마도 前記 浮屠와 關聯있는 碑石의 碑座龜 趺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附近의 細密한 再調가 있어야 될 것 같

다.

- (3) 眼象石: 長大石片의 測面에 二柱의 掌柱가 刻出되고 三區에 各一區씩의 眼象이 陰刻되었는데 그 手法은 羅末麗初로 推定되었었다.
- 實測值(cm)는 石材 現高 一八 眼象 高 八·五 撐柱 幅 四 眼象 幅 二六·五

- (4) 長方形埴土: 灰青色의 埴土로 洞里 한복판인 金玉圭氏宅 後庭에서 發見되었는데 洞民들의 말에 依하면 이러한 模樣의 埴土는 無數히 出土되었으며 現在도 民家數地에 많이 埋沒되어 있다고 한다.
- 實測值(cm)는 一邊長 一一·三 一厚 五

- (5) 柱礎石: 民家마다 柱礎石을 建築資材로 많이 使用하고 있는데 圓座礎石과 方形礎石으로 方形에서도 그 크기가 三種類 있었다. 實測值(cm)는 圓座柱礎石 內徑 四三·八 圓座柱礎石 外徑 五四 方形礎石 一邊 長 ① 四〇 ② 四五 ③ 六〇

- (6) 長大石類: 여러 種類가 發見되었으나 大概是 法堂築臺나 地臺石으로 보였다. 以外에 瓦片은 周邊 耕作地에 散亂한데 唐草紋이 彫刻된 막새가 調査되어 麗代로 推定되었었다.

以上 이번 一次調査에서 發見된 몇 가지의 遺物을 簡單히 紹介하였는 바 時期가 夏節이어 穀物때문에 細部的인 調査가 困難하였고 더욱이 民家를 初面에 살살이 深索할 수가 없어서 뜻대로의 調査를 期하지 못하였다. 適切한 季節에 再調의 機會가 있어서 完全한 調査報告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註

① 拙稿·槐山石造浮屠(本誌 第五卷 第二號 通卷四十三)

② 氏는 이 곳이 故鄕이라 하며 當時 이 浮屠를 본 사람은 現在도 이 部落에 많이 居住하고 있다 한다.

### 在銘印花文粉青沙器 新例

鄭 良 謨

年前 卞某氏의 厚意로 大邱 某收藏家의 秘藏品인 表題의 粉青沙器印